

##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인 이민

-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와 현지적응\*

서성철(재외동포재단)\*\*

- I. 서론
- II. 아르헨티나이민 개괄
- III. 민족정체성과 한인회
- IV. 향후 전망과 과제
- V. 결론

### I. 서론

중남미 한국 이민사에서 아르헨티나는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1960년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민 개념이 채 서 있지 않았고, 중남미 국가와의 외교 관계나 인적, 물적 교류가 거의 없었던 시절, 일단의 한국인들이 최초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로의 진출을 시도했다. 광활한 영토와 자연자원이 풍부한 성장 잠재력에 비해 인적자원과 자본이 부족했던 이들 세 나라는 전통적으로 외국인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취해왔다. 특히 거대한 영토에 비해 농장에서의 노동력이 부족했던 아르헨티나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장을 경영코자 하는 목적에서 들어오는

\* 이 논문은 2002년 학술진흥재단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M-2085).

\*\* Sung Chul Suh(Overseas Koreans Foundation, scsuh@unitel.co.kr) "América Latina e inmigración coreana : la comunidad coreana en la Argentina y la adaptación de los coreanos en la Argentina".

외국인민들은 대부분 환영받았다. 이러한 이민 수민국들의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 1960년대 초,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사회불안을 걱정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농업으로 성공하겠다는 희망을 안고 이민을 떠났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이라는 나라는 산업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낙후된 국가였고, 그 당시 정부는 이주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따라서 오로지 자신의 노동력만을 믿고 그곳으로 떠난 한국인들은 초창기 현지에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보도 부족하고,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남미에 도착한 한국인들은 곧 그들에 익숙한 한국적 농업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농업이민으로서 현지상황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이민의 본래 목적이었던 농업이민으로 정착한 한인은 극히 소수에 이르렀고 대부분은 대도시로 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현지언어를 습득하고, 현지생활에 차츰 적응하면서 새로운 이민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농업에 종사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업, 그중에서도 의류업을 자신들의 생계수단으로 삼았다. 그동안 이민국인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사정, 현지사회에의 적응 등 여러 난관과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인 이민들은 나름대로 정착을 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아르헨티나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한국인들은 많은 타격을 입었다. 아르헨티나는 1991년 태환정책을 실시한 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결국 2001년 말에는 외채 지불정지를 선언하는 등 국가적인 파산 상태를 경험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sup>1)</sup>

1) 1970년대, 80년대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과도한 외채,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노동자의 파업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했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메넬 정부기간 동안에 공기업의 민영화, 무역자유화를 통한 수출의 확대, 환율의 안정으로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90년대말부터 경상수지 적자, 실업률의 증가와 사회적 불안의 고조, 러시아, 브라질 외환위기의 여파로 아르헨티나 경제 또한 흔들리고 있었고, 2001년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결국 대외채무지불 불능이라는 모라토리움 사태를 맞게 되었다(Ministerio de Economía y Producción 2005, 9-21).

아르헨티나가 신자유주의의 과실과 피해를 동시에 받았다면 그곳의 한인동포 역시 동일하게 그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당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입은 피해 못지 않게 그곳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 역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 여파로 가히 ‘엑소더스’라고 부를만한 역내국가로의 대규모적인 재이주, 또는 한국으로의 역이민 현상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났다. 그동안 소규모로 시작된 아르헨티나 이민은 초기 농업이민 이래, 1980년대의 투자이민을 계기로 이민 수에 있어서, 그리고 한인사회의 크기나 위상,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 및 사회불안으로 인하여 한인사회가 축소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고, 한인사회의 위상도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미 40년에 육박하는 이민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이 어렵게 정착한 나라를 버리고 새롭게 다른 곳에 삶을 시작하는 것은 이민 각 개개인에게는 고통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 이주해서 이미 살고 있는 한국인의 이미지, 더 나아가 한국의 위상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건, 사회건 국가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국을 떠난 이민이 해당 거주국에서 부딪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로의 진입과 또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한국인들은 지금 해당지역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개방화 정책에 휩쓸려 자기가 떠나온 모국이나 이민간 지역 어디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적 고통과 해당국 정부 및 사회의 편견과 질시, 그리고 이민자들 자체의 문화적 갈등과 정체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서성철 2004, 174).

동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199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의 설명을 위해서 이제까지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종사하고 있고, 여전히 한국인 이민자들의 주요 생계수단인 의류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재이주 및 현지 아르헨티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동하는 한국 이민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한국인들이 바람직한 이주 및 정착, 나아가서는 한국인들의 주류사회로의 진출과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 II. 아르헨티나 이민 개괄

### II.1. 아르헨티나 이민 역사

아르헨티나의 이민정책은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백인우선주의를 견고하게 유지해 왔다. 중남미의 타 국가들 역시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도하였지만 아르헨티나만큼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고,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유럽계 백인 비율이 각각 95%, 61%를 차지하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대략 10-20%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아르헨티나 이민정책의 특징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는 엄청난 농업자원을 바탕으로 20세기 초까지 경제발전을 거듭하였고, 당시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으며, 유럽계 이민들의 자본 유치가 단기적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아르헨티나의 이민정책은 이러한 경제사정과 관련하여 유럽 이외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이민조건을 제시하였다. 1960년대 한인들의 남미 이민이 시작되었을 때도 아르헨티나는 이민 대상국가로 떠오르지 않았으나 광대한 미개척지를 가진 아르헨티나인지라 농업 이민은 별다른 제약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 농업이민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입장에서도 선호되었으며, 이는 한인 이민들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백인 이외의 이민족 집단은 숫자상으로도 적고, 정착의 역사도 짧은 편이어서 이들은 대부분 사회-문화적으로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르며 계층적으로도 도시의 중하층을 이루고 있었다. 농업이민으로 초기에 농장에 정착했던 한인 이민들 중 대부분이 농장을 떠나 도시로 갔을 때, 한인 이민들이 가장 쉽게 정착할 수 있었던 곳이 빈민지역 판자촌이었다. 변변한 사업자금도 없었던 한인들은 판자집을 겨우 얻은 뒤, 아르헨티나의 빈민들과

함께 밑바닥에서부터 이민생활을 시작하였다. 남미로 간 많은 수의 한인 이민들은 파라과이나 볼리비아의 불법이민자들 틈에 끼어 이 지역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된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었다. 군사정권의 거듭된 실정으로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1980년대 중반 들어 인종이나 국적의 구분 없이 외국인 투자이민을 유치하는 쪽으로 이민정책을 선회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아르헨티나로 향하는 한인 이민은 한때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민의 성격에 있어서는 이전과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소위 투자 및 자영업 이민은 일정 수준의 자기 자본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명확한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주해 가는 것으로 아르헨티나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과거 무일푼으로 정착한 이민들에 대한 것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형태의 한인 이민은 처음부터 아르헨티나 경제와 사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며, 이민 생활을 통해 접촉하는 대상도 아르헨티나의 주류 사회계층으로 변화되었는데, 후기 아르헨티나 이주자들은 아르헨티나에 와 있던 초기 이민들의 초청이 많았으며 이들의 이주 경험과 기반이 후기 이민들이 쉽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최초의 한인이민은 6.25전쟁의 반공포로들로서 1956년에서 195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국인 아르헨티나를 선택하면서 이 나라에 오게 되었다.<sup>2)</sup> 1962년 한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국교가 수립되고 1965년에 한국인들을 태운 배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아르헨티나 이민이 시작된다.<sup>3)</sup>

1960년대 당시 한국정부는 인구 과잉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민을 장려하여 소수의 한국인들이 배편으로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 도착, 정착하게 되는데 이 이민이 이후의 남미 이민의 효

2) 여기서 최초라고 하는 것은 해방 후에 그렇다는 것이다. 일제시기, 한국인들이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에 들어온 예가 몇몇 있다. 아무튼 1956년 10월 21일, 그리고 1957년 5월 11일, 반공포로 12명이 인도 뉴델리 유엔 포로수용소를 출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였다.

3) 1965년 10월 14일 제1차 라마르케(La Marque) 영농이민단 선발대 13세대(78명)가 부에노스아이레스 항에 도착, 리오네그로주 라마르케 농장으로 들어가 농업이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시가 되는 것이다.

1971년에서 1977년 사이에는 200가구의 신규 이민자들이 선배 이민과는 달리 배가 아닌 항공편으로 아르헨티나에 도착하였고, 이 시기의 이민부터 신규 이민자의 입국에 관한 아르헨티나의 공식 통계 자료가 잡혔다<sup>4)</sup>(Mena 1998, 42). 이민동기를 보면 1960년대에 농업이민으로 간 사람들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는 희망을 갖고 있었고, 1970년대에 아르헨티나로 간 이민들은 남북 대치의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로서 주로 한국에서는 중산층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에 목사나 독실한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특이하다. 1985년에는 한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투자이민협정 체결<sup>5)</sup>로 투자이민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자본을 지닌 동포들이 많이 이주해 갔다. 이들은 이민온 후에는 자신들의 경제적 활동을 위해 기존의 한인 이민사회와 접촉하면서 정착을 한 사람들로서 선배이민들이 이룩해 놓은 각종 혜택을 누린 계층이었다<sup>6)</sup>(Mena 1998, 45). 이 투자이민의 유입과 함께 자본과 한국산 편물기가 도입되고 한국 기술자들이 초청으로 이 나라에 오게 되면서 한인 웨터 업계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4) 국립이민청의 한인이민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1970년에서 1977년 사이에 2,800명의 한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했다. 그러나 1978-83년 사이에는 그 수가 1400명으로 감소한다. 그 후 1984-89년 사이 영주권 소유자의 수는 11,000명으로 증가한다. 물론 각각의 영주허가가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89년까지 한인 영주권 소지자의 수는 27,000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아르헨티나의 인접국에서 이민해 온 한인도 포함된다(Mena 1998, 47).

5) 이 새로운 투자이민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인이 아르헨티나에 이주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합당한 정착계획서를 제출하여 아르헨티나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주계획이 승인되면 정착자금으로 쓰일 미화 3만불을 아르헨티나 당국이 지정하는 외국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한편, 한국이민들이 사업을 하고 거주할 지역은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적어도 150킬로미터(후에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주를 희망하는 한국인은 한국정부가 지정하는 5개 이민알선업체를 통해서 이민수속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이교범 1992, 291).

6) 1984년에서 1989년 사이에 온 이주자의 대부분이 서울 출신이었다. 투자 자본을 가지고 항공편으로 도착한 이들은 들어오면서부터 한인사회 활동의 중심지역인 한인타운과 떨어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부유한 동네에 정착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아르헨티나 경기가 침체되면서 아르헨티나를 떠나는 동포들이 늘어나면서 아르헨티나 거주 동포 수가 대폭 줄었고, 한인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다가 2003년 말부터 한국인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무비자 입국으로 새로운 이민, 관광객, 유학생들이 늘고 있고, 또 멕시코나 미국, 그리고 인근 다른 국가로 이주했던 동포들이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 II.2. 아르헨티나 한인사회 현황

2003년 현재 중남미 전 지역에는 10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브라질이 50,250명으로 동포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멕시코가 17,200명, 세 번째는 아르헨티나로서 15,500명이 살고 있다.<sup>7)</sup>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재외동포의 수는 완만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인이민들이 진출하여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세 나라<sup>8)</sup>, 즉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의 인구변화를 보면 이 중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브라질은 6년 사이 변함없이 4만 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7년도에 비해 2003년에는 약 6,000여명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동포 수는 1997년 32,069명에서 2003년 15,500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마찬가지로 파라과이의 동포수도 1999년 10,412명에서 2001년 6,19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멕시코의 동포수는 1999년과 2001년 사이, 2,379명에서 19,5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동포수가 줄어든 것은 두 지역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많은 한국인이 멕시코나 브라질(미국, 한국으로의 역이민까지 포함

7) 이 세 나라 다음으로 과테말라에 7,954명, 파라과이에 7,097명, 칠레에 1,870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8) 최대 이민국인 브라질의 동포는 전체 동포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동포는 그 수가 감소하여 전체의 15%를 차지하는데(양국의 동포를 합치면 전체의 63%), 여기에 파라과이를 합치면 3대 이민국에 70%의 동포가 집중되어 있다.

해서) 등으로 재이주했기 때문이다.

늘 그렇지만 이민사회의 인구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최근 이민자들의 이동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더욱 추정하기가 어렵다. 현지 동포신문의 추계에 의하면 2002년에 만 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가<sup>9)</sup> 최근 아르헨티나의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치안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멕시코나 브라질, 미국으로 떠났던 동포들이 아르헨티나로 속속 돌아오면서<sup>10)</sup> 현지 동포신문이나 한

9) 아르헨티나 동포신문은 이민역사상 종교단체의 교인수가 재이민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주요종교단체에게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한인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것을 보면, 이민 1세와 2세를 포함해 개신교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동포 수는 약 6천명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톨릭 교인은 1천6백 명, 여호와의 증인은 260여명으로 드러났다. 또 종교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과 지방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략 2천여 명으로 잡을 경우 한인사회의 규모는 대략 약 1만 명 내외인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일보[아르헨티나판] 2002년 4월 18일자)

10) 필자가 2004년 8월에 아르헨티나에서 만난 박희섭씨(1944년생)의 경우도 그 한 예에 속한다. 그는 2002년 멕시코에 재이주했다가 2004년에 그곳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왔다. 1969년 해외개발공사에서 선원을 모집할 때 응모하여 아르헨티나 참치어선의 선원으로 아르헨티나에 왔다가 한국에서의 조건과 아르헨티나에서의 조건이 맞지 않아 배 한 번 제대로 타보지 못하고 아르헨티나에 주저앉게 된 경우이다. 당시 그는 아르헨티나 선박회사에서 영주권을 포함한 모든 체제 서류를 받아 쉽게 아르헨티나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당시 12명 정도의 한국인 선원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남았다고 한다. 그는 곧바로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역시 한인들이 많이 살던 109촌에 들어가 요꼬일을 배워 한동안 하다가 유태인이 경영하는 의류가게 종업원으로도 일했고, 나중에는 소규모 자본을 모아서 구멍가게, 식료품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온세지역으로 진출해 옷가게를 하고 천장사를 했다고 한다. 물론 1985년도 알폰신 정부시절 화폐개혁으로 많은 손해를 당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9촌에 건물을 사, 호텔을 경영하다가 2000년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사태로 완전히 망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이민 붐이 불었던 멕시코를 생각하여 2002년에 멕시코로 갔다고 한다. 특히 1998년에서 2000년 사이 많은 아르헨티나 거주 동포들이 멕시코로 들어갔는데 대부분 몇 십만 불씩 아르헨티나에 번 돈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한다. 당시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약 200세대로 지금 대부분은 다시 아르헨티나로 다시 돌아갔고, 한 50세대 정도만 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멕시코에서 처음 집장사를 하였다. 그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동포들의 약 70%는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착안하여 멕시코에서 집수리를 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하여 파라과인 인부들을 고용하여 집수리를 하여 돈을 벌고자 하였으나 멕시코의 경우는 아르헨티나와 달리 집수리는 집주인이 다 하고 멕시코의 경우는 세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생각해서 결정했던 일이 낭패를 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멕시코에서 한 집을 빌려 미국 LA 등지로 가서 한국식품들을 가지고 와 멕시코시티의 한인상회나 레스토랑에 공급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빈발하여 식품이나 재료 등이 상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지금 자기 생각으로는 멕시코에는 약 50세대 정도가 남아서 잡화상이나 식품가게, 그리고 하숙집등을 경영하면서 멕시코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그 역시 2003년부터 아르헨



인사회의 관계자들은 2만 명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아무튼 1987년 당시 이민자들의 급증으로 3만6천명(이교범 1992, 309)을 정점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로 아르헨티나의 한국인 이민 숫자가 대폭 줄어든 것만은 확실하다.

아무튼 한때 브라질에 이어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아르헨티나 동포사회는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경제난과 금융위기로 많은 타격을 받았다.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시작한 2001년 이후 예금인출제한조치, 폭동사태로 인해 많은 동포들이 아르헨티나를 등졌고 이 때문에 동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한인타운과 시내의 아베자네다 및 온세 지역의 한인상가는 휴폐업이 잇따르고 있고, 이에 따른 인접국가로의 대거 재이민은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들에서 “남미의 엑소더스”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되었고<sup>11)</sup>, 98년에 2천명에 불과했던 멕시코 동포수는 2000년 2만여 명을 추산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이미 아르헨티나를 떠난 사람 말고도 적지 않은 동포들이 휴가를 이용하여 멕시코 이주를 위해서 사전답사 계획을 세우는 등, 당시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들떠 있었고 불안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

티나 경기가 좋아지는 조짐이 있다는 판단 하에 멕시코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잡화상을 하고는 있지만 실사 멕시코에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멕시코로 다시 가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멕시코로 아르헨티나 이민자들이 들어가면서 먼저 와 있던 멕시코시티 한인회 사람들과의 충돌이나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시티의 한인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센트로 지역이나 페베로 지역에 먼저 들어가 자리 잡았던 한인들과 최근에 들어간 아르헨티나 거주 동포들 사이에 가게 임대료 가지고 몇 사람이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고 한다.

- 11) 불안정한 현지 경제, 치안사정으로 재이주, 역이민 열풍이 불고 있다. 현지 시사종합주간지 “Foco”가 한국인이 아르헨티나를 떠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고 동포일간지 한국일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떠나고 싶다”가 응답자의 53%에 달했다(부에노스아이레스 거주 20세 이상 성인 142명에 해당). 심지어 멕시코에 정착코자 하는 아르헨티나 동포들의 정착을 도와주고자 하는 교회도 생겨났다.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활동을 하다 2001년 9월 멕시코시티에서 교회를 세우고 활발하게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서석동 목사에 의하면 2-3년 전부터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동포들의 재이민으로 멕시코 동포인구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lt;표 1&gt; 라틴아메리카 재외동포 현황

지역	1997	1999	2001	2003	백분율(%)
브라질	44,201	46,916	48,097	50,250	47.87
주브라질(대)	708	553	519	650	0.62
주상파울로(총)	43,493	46,363	47,578	49,600	47.00
아르헨티나	32,069	31,248	25,070	15,500	14.67
멕시코	2,168	2,379	19,500	17,200	16.28
파라과이	10,278	10,412	6,190	7,097	6.72
과테말라	2,051	4,128	5,456	7,943	7.52
칠레	1,470	1,487	1,509	1,870	1.77
페루	1,774	810	919	953	0.92
에쿠아도르	959	762	720	728	0.69
볼리비아	718	977	709	758	0.72
도미니카	582	584	588	477	0.45
온두라스	687	759	461	415	0.39
콜롬비아	427	646	428	433	0.41
코스타리카	291	295	385	476	0.45
파나마	328	308	315	312	0.30
엘살바도르	250	360	307	310	0.29
베네수엘라	298	277	278	280	0.27
수리남	-	201	189	122	0.12
니카라과	58	68	157	303	0.29
우루과이	70	94	106	124	0.12
자메이카	102	31	1,155	65	0.06
가이아나	33	22	7	1	-
아이티공화국	5	3	7	20	0.02
트리니다드토바고	24	17	2	1	-
세인트루시아	9	0	0	5	-
총 계	98,852	102,806	111,462	105,643	100

출처: 『재외동포현황』(외교통상부 2003년 7월)

1960년 이후의 가족 이민들에게 예정된 생계 방식은 농지 개척을 통한 집단적 영농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이민자들은 농장을 떠나 도시로 나갔다. 대도시의 빈민촌이나 주위에서 소자본으로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 야채, 과일 노점상, 막노동, 한국에서 가지고 간 옷가지들을 행상으로 팔기도 한 초기 한인 이민들의 생활은 대단히 어려웠다. 그러면서 이민들의 생업은 점차 의류업 쪽으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샅일이나 행상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규모와 동포들 간의 연결망을 확대하면서 더 많은 동포들을 거대한 의류업 체계 내로 흡수할 수 있었다.

이민 40년의 역사를 가진 아르헨티나 한인사회는 그동안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 왔다.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플로레스(Flores) 지역에는 유명한 109촌<sup>12)</sup>이 마치 규모는 작지만 LA의 코리아타운을 방불케 하고 있고, 약 20년전부터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의류업계로 진출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최대 상가인 아베자네다(Avellaneda) 및 온세(Once), 그리고 아르헨티나 지방도시에 진출하여 활발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한인들 대부분이 의류업에 종사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109촌의 거리 곳곳에 즐비하게 걸린 한국인 가게나 상점의 간판이 말해주고 있듯이 식당, 식품점, 약국, 병원, 정육점, 이발소, 미용실, 선물가게, 자동차판매소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행사, 보험대리점, 부동산소개소, 숙박업소, 세탁소 등을 운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1965년 발족한 교민회에 이어 2004년도 제16대 교민회(현 회장 이영수)가 있고 동포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는 현지동포신문이 2개가 있으며, 차세대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정규 전일제

12) 아르헨티나 이민사에 유명한 109(또는 백구)촌은 한인들이 많이 살던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던 109번 버스의 종점을 고유명사화해서 부른 별칭이다. 이민 초창기 자본 없이 들어온 동포 이민자들은 번듯한 주거지를 마련할 형편이 못되었다. 1966년 아르헨티나 초기이민이었던 김형태씨 부자가 연립주택 형태의 빈민주거지에 최초 입주하면서 훗날 '한인타운'의 모태가 되었다. 1995년 8월 28일 아르헨티나 한인사회는 109촌 일대의 한국인 집거지인 '백구촌'을 '코리아타운'으로 '백구자치회'를 '한인타운 자치회'로 개명하면서 아르헨티나 한인사회 제도약의 계기로 삼았다.

한국학교가 있고 또 토요일마다 한글을 가르치는 주말학교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포함 지방까지 합쳐서 6개에 이른다. 종교단체로는 개신교회가 총 38개 있고, 천주교 성당과 불교사찰이 각각 하나씩 있다. 경제단체로는 최근에 발족한 <한·아경제인협회>가 있고, 각종 친목단체, 스포츠단체, 동문회 등이 있다. 지상사로서는 삼성 및 LG, 대우전자, 동원 등 8개의 지상사가 진출하여 업무 중이며 국내은행으로 국민은행이 진출해 있다.

### II.3. 아르헨티나 한인의 경제 활동

아르헨티나 한인사회를 알려면 아르헨티나 한인이민의 경제활동에서 주업종을 차지하는 의류업을 통해서 그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한인 중심의 독자적인 상가를 형성하면서 이민 인구의 약 80% 정도가 의류의 생산, 유통, 판매에 종사하고 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이민들은 똑같이 의류업에 종사하였지만 그 발전과정은 차이가 난다. 브라질에서는 옷 행상이라는 상업적 활동에서부터 의류업 전체로 확대되었다면, 아르헨티나에서는 각종 샅일의 생산활동에서부터 의류업 전체로 확대되어 나갔다. 의류업은 본질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력을 갖지 못한 한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전경수 1996, 112-113).

아르헨티나 한인경제에서 1960년대는 의류업의 초기 형성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의 한국이민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촌에 모여들어 생업을 모색하고 있었다. 1966년경부터 레띠로 판자촌에는 농업이민을 포기한 일군의 아르헨티나 이민들과 파라과이에서 들어온 재이주민들이 모여들어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었다. 이들 초기 이민들은 절박한 경제사정 때문에 돈 벌이가 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았는데, 주로 이민 보따리에 가지고 온 생활필수품들을 거리에서 팔았다. 이런 실습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최소의 자본을 모아 채소상이나 구뎃방을 시작했다. 채소상은 한때 이민자들 사이에서 유망업종으로 인식되었다. 채

소상이 번창하자 식품점 품목을 곁들인 가게가 늘어났고, 잡화상도 등장했다.

아르헨티나 이민들이 2번째로 형성한 집단거주지는 비자솔닷떠촌이라는 빈민촌이었다. 여기서의 생업 역시 레띠로촌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이 지역에 요꼬 기술자가 여러 명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요꼬 샅일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3번째로 등장한 아르헨티나 이민들의 집단거주지는 109촌이라는 곳이었다. 109촌 역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거주 지역 가운데 하나였는데, 명실 공히 아르헨티나 최대의 한인이민 밀집거주지로 발전한 곳이다. 109촌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1968년 중반부터 이곳에서 시작된 편물 샅일이 이민사회의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거기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는 봉제 샅일까지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한인사회의 경제 중심부로 자리 잡았다.

1970년대는 의류업의 발전 시기로서 아르헨티나의 한인 이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1978년을 기점으로 그동안 누적된 아르헨티나 한인 인구나 파라과이로부터 이주해 온 불법이민 인구를 합치면 총이민 인구가 약 5천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서 75% 이상의 세대가 편물 및 봉제 샅일에 종사하였다. 1976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총 700세대 가운데 335세대가 편물업(48%), 200세대가 봉제업(28%), 124세대가 상업 및 서비스업(18%), 21세대가 농업(3%), 나머지는 기타 직종(3%)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수치에서도 반영되는 것처럼, 아르헨티나 이민들은 1970년대를 의류 샅일의 ‘전성시대’라고 부른다.

1980년대는 한인 의류업 경제가 도약한 시기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시기 한국에서 새롭게 들어온 신규이민이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 아르헨티나 한인들의 의류업은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 때 한인들의 전문의류상가로의 진출이 본격화한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 초까지는 아르헨티나에서도 한인 이민들의 생활에 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그 변화는 두 가지 측면

에서 나타났다. 첫째는 주거지역의 이전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이고, 둘째는 한인들의 경제생활을 주도해 온 의류업의 질적 발전이다.

아르헨티나 한인들이 빈민촌에서 일반주택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은 거주 장소의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생활수준 및 주거수준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민촌을 벗어난 한인 이민들의 주거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전후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인 의류업의 질적 발전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67년부터 아르헨티나 한인들의 젓줄 구실을 해온 것은 편물 샅일, 요꼬 샅일, 봉제 샅일 등이었다. 1975년까지는 편물과 요꼬 샅일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고 이후 1979년까지는 봉제 샅일이 이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다가 1977년경부터는 온세 지역의 의류도매상가로 진출하는 동포들이 하나 둘 생기게 되었고 의류생산을 시도하는 동포들이 차츰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에 들어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동포사회의 의류업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의류업계의 선두주자들은 앞다투어 온세 의류도매상가로 진출하여 의류 도소매업자로 뛰기 시작했고,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받은 일부 의류 샅일업자들은 의류생산업자로 바뀌어갔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의 호황기에 자본력을 갖춘 한인 의류업자들은 온세 의류상가로 대거 진출하였다. 1982년 처음으로 한인 원단업자가 생겼고, 1984년부터는 한인 원단 도매상들이 한인 의류생산업자와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5년 경에는 한인들 가운데 8군데의 원단도매상과 6군데의 원단 생산업자가 있었다. 이들 대규모 상인 외에도 이 당시 의류 도소매상은 179개소에 이르렀고 지방 진출 의류상도 100개소에 육박하였다(이교범 1992, 356)

한편, 아르헨티나 정치와 경제의 혼란은 때때로 한인들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했다. 1981년 제 2기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달러화 가치폭등 파동이 생기기 시작했고, 특히 1982년 4월의 포클랜드 전쟁(말비나스 전쟁)은 아르헨티나 경제 전체를 흔들여 놓은 대사건이었다. 이러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한인들의 온세지역 진

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되었고 많은 의류상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 전쟁으로 한인들이 받은 타격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아르헨티나 한인들의 의류업은 전체적으로 발전을 계속했다.

1990년대에서 현재는 한인의류업계의 위기와 재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한인 의류업이 이전과 다른 특이점으로서 마진율의 현소한 감소를 들 수 있다. 동종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옛날에는 3, 4불로 유지되었던 마진폭이 크게 감소하여 소위 '1불 떼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매상은 떨어지지 않았으나 마진폭이 크게 떨어져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한편, 이동식 시장인 페리아(Feria)의 보편적 현상이 동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동포들이 페리아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이다. 대개 중앙시장 페리아에 집중되었던 페리아가 최근에는 볼리비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볼리비아노 페리아로 진출하고 97년에는 동포들 사이에서 페리아식 상가도 생겼다.

한국 시골의 5일장과 같은 페리아는 원래 볼리비아인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으나 소수 동포들에 의한 중앙시장 페리아가 번창하자 인근 위성도시의 볼리비아노 페리아로 동포들이 다수 진출하여 수, 토, 일요일에는 중앙시장에서, 월, 목요일에는 다른 페리아로 쉼 없이 옮겨 다니며 적지 않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페리아의 보편현상이 의류업에 종사하는 동포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재아한인사회, 87-88).<sup>14)</sup>

그러나 이 시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인의류업계의 체제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제까지 동포 의류업계는 크게 보아서 생산과 판

13) 3, 4년 전만 해도 유지되었던 30-40% 마진이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지금은 10%선까지 낮추는 도매상들이 많고, 1993, 1994년 태환정책 초기에는 최저 마진율이 30-40%로서 이 시기, 많은 동포들이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97년은 동포 의류업계의 성장둔화를 뚜렷하게 보여준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14) 처음에는 의류를 생산하던 사람들이나 도매상들의 일시적인 재고처리와 현금 수거를 위한 것이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유통 체제를 이루고 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인 페리아 의류상은 한 3,4백 개 세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개중에는 온세나 아베자네다에 도매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뛰어 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유통되는 의류의 종류와 물량은 엄청나다.

때 모두가 동포 손에서 이루어져왔다. 즉, 원단에서 봉제에서 그리고 도매, 소매에서 이르는 모든 라인에서 경제성을 지니게 되었고 그것이 한국 동포들의 경쟁력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한국 의류업체의 생산, 판매라인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 한인들의 경제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던 값싼 임금의 볼리비아인들이 의류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한국인 밑에서 배운 뒤, 독립하여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의류시장에 공격적으로 침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 의류업체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sup>15)</sup> 또 하나,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대중국접근정책이 시작되면서 세계 저가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 의류제품이 아르헨티나에 진출하면서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인 이민들과 가까운 장래에 경쟁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현재 한국의류업체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사정, 경쟁력 상실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나 해결책 마련 등이 동포, 한인사회,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직면한 당면과제 중의 하나이다.

### III. 민족정체성과 한인사회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들은 가족생활, 자녀교육, 경제생활, 한인회 활동 등을 통해서 민족문화,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동포들 중 절반이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면서 스스로를 아르헨티나인이며 한국인(50.5%)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경우(40.0%)가 높고 아르헨티나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6.3%)는 낮았다. 반면에 소속감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아주 소수(3.2%)에 불과했다. 이러한

15) 장영철과의 인터뷰에서

16) 2000년 한 한국의 대학연구소(경희대학교 인류사회연구소)의 조사를 그대로 재인용한 것인데, 이 설문조사가 실시된 시점하고 지금은 그렇게 많은 변동 상황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어 동 연구소의 설문조사 내용을 그대로 재인용한다.



결과는 “한국 동포들이 한국과 아르헨티나에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아직도 압도적으로 한국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은 해당사회에 동화되기 보다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보인다<sup>17)</sup>(인류사회연구소 2002, 182).

이렇게 한국 동포들이 거주국인 아르헨티나에 대한 낮은 소속감과 한국인로서의 강한 정체성 유지는 향후 한국으로의 귀국여부와 아르헨티나 잔존 여부에 대한 반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동포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에서 41.1%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21.0%가 제3국으로 갈 것이라고 하여 총 62.1%가 아르헨티나를 떠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아르헨티나에 계속 살 것이라고 응답한 동포는 37.9%에 불과했다. 그 중 제3국으로 가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아르헨티나를 떠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이주하겠다고 하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32.6%)을 첫째로 꼽았다. 1980년대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의류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만성적인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불안은 여전히 한국동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교육문제(21.1%)로 앞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목적에 대한 설문에서 동포들의 과반수 이상(58.9%)이 자녀교육을 선택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자녀교육문제가 최상의 현안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문화적 괴리감(16.8%)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여전히 한국인들이 아르헨티나 사회에 동화되지 못함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동포

17) 1997년 아르헨티나 소재, <재아한인이민문화연구회>가 아르헨티나 거주 한국인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997년 11월)에 따르면, 평소 “자신이 한민족(한인)이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4.7%(431명)이, “매우 자주” 한다고 응답하였고, “가끔”은 22.0%(12명),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한 사람은 2.6%(15명), “전혀 하지 않음”은 0.35% “모름/무응답은 0.35%(2명)으로 나타났다(재아한인이민문화연구회, 372-379).

들이 아르헨티나 현지사회와 활발한 교류와 접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민 1세대나 2세대 대부분은 한국어를 사용한다. 이것 역시 아르헨티나 한인사회가 현지사회와 아직까지도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어를 사용하는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역시 여전히 한국어(한글)가 높지만 2세, 3세로 내려오면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sup>18)</sup>

자녀들의 교육이 이들의 이민목적 중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문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자녀들이 교육장소로 바람직한 곳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중 14.7%만이 아르헨티나 현지라고 응답한 반면에 46.3%가 미국, 16.9%가 한국을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대답하여 아르헨티나가 아닌 국가에서의 교육을 원하는 동포들이 63.2%에 달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르헨티나 동포들 중에는 자녀들의 교육장소로 한국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의 이민 동기의 주요 이유로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아르헨티나 동포들의 이러한 응답은 예외적이다. 거기에는 아마도 경제발전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들 수 있는데 한국으로의 역이민 현상처럼 여기 아르헨티나에서 공부한 이민 학생들 역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언어문제, 문화충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는

18) 한국어 구사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가 87.4%(504명), “어느 정도” 구사함이 11.0%(60명)로서 응답자의 98.5%가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93%(530명), “스페인어”가 6.8%(9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한국어를 모르는 이민 2세대의 한국어 학습능력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매우 노력”(40.2%), “어느 정도 노력”(28%) 한다는 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별로 노력 안함”(11.6%), “전혀 노력 안함”(13%)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해 향후 이민 후속세대로 갈수록 한국어보다 스페인어 사용 비율이 높아질 것은 예측가능한 일이다.

괴리감이나 단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식들의 모국에서의 교육을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다시 말해, 부모세대들은 시급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터전에 뛰어들어 한국 동포들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영역권에서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동포들의 자녀들은 현지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언어를 습득하고 현지문화에 익숙해지면서 현지사회에 동화되었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들 간의 차이로 인해 유발된 괴리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포들이 자녀들의 한국에서의 교육을 희망했다고 보여진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자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쓰도록 교육시킨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모 대신 한글학교나 한국학교가 부모 대신 이 교육을 맡아 한글,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가르친다. 그러나 교육내용과 방법이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탓에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자녀들의 교육에 더욱 적극적인 사람들은 자녀들을 모국에 보내 한국어 연수와 함께 한국문화를 실제로 접하도록 한다. 결국 이민 2세대들은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과 한국(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어렵פות하나마 한민족의 정체성을 체득하게 된다(전경수 1996, 198).

이제 성년의 단계에 들어간 아르헨티나 이민 역사의 경우, 가족생활, 경제생활, 한인회 활동, 문화화 과정 등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인 면에서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사회의 변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현지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적응은 끝이 났지만 문화적 적응은 오히려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민족의 정체성이 어떻게 유지될지는 이러한 과정이 지나봐야 제대로 평가되고 예측될 수 있을 것이다(전경수 1996, 198-190).

## IV. 향후전망과 과제

### IV.1. 당면과제

다른 모든 이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의 당면 과제는 현지사회에 대한 적응이다.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는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한인들의 시민적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갈등의 소지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앞으로 한인들의 이민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지름길은 현지사회의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적 관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시도와 노력에 있다. 보통 한인이민들은 외부인들이 자신에게 가진 편견 이상으로 그들에 대해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다민족의 생활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한국사회에서의 생활경험과 전혀 다른 것이다. 다른 민족의 문화를 그 자체의 논리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문화상대주의의 미덕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하면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항상 별종의 인간으로 보이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왜 갈등이 생기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전경수 1996, 210-211).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현지 동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다. 최근 상황이 조금 호전됐다고 하기는 하지만 많은 한인 의류경제가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동포사회를 뒷받침했던 한인 의류경제가 흔들리면서 동포경제를 유지시켜왔던 계모임이 깨지고, 사기사건의 빈발, 채무문제 등으로 동포사회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동포들 사이에서 현지법과 문화를 무시한 불법행위가 일어나면서 한인사회가 현지 사회나 언론으로부터 곱지 못한 시선을 받고 있다.

2000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의 '탈세추방 정책'에 따라 국세청, 노동청, 연방경찰 등이 합동으로 한인밀집 지역인 109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현지 일간지에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뒤, 그들을 노예처럼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민족으

로 매도되었다.<sup>19)</sup> 간혹 현지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민간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긍심을 가진 민족의 일원으로서 현지에 적응하면서 해당국의 법률을 따르고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다. 소수에 불과한 동포들의 불법행위로 대다수 선량한 동포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현지에서 살아가야 할 이민자의 운명이라면, 그리고 한인사회가 현지사회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행동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향후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에 남겨진 과제이다.

한인의류업이 직면한 격렬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선 경영합리화를 들 수 있고, 전문화 그리고 기술, 모델의 창조적 개발과 향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동포들 사이에 의류업계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많은 경우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데에서 갈라진다. ‘꼬빠아’(Copia) 문제는 그런 점에서 동포 의류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물론 이것이 동포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심각하게 아르헨티나 동포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한다. 동포들이 너무 의류업계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제조업에도 눈길을 돌려 업종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 기존기술을 이용한 가능성에 도전하여 의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사업무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상공인회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많은 정보를 동포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고, 또 가능하다면 각각의 분야에 해당 전문인들을 배치하여

19) 아르헨티나 유력지 끌라린(*El Clarín*)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한국인은 일꾼을 노예처럼 부리고 탈세를 일삼는 파렴치한 민족”으로 보도했다(2000년 2월27일자 엘끌라린). 아르헨티나 동포신문은 끌라린지의 이와 같은 한인관련 보도에 대하여, 즉각 한인 공장주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현지언론 보도가 인종차별, 편파적 보도라고 65%가 답하였고, “인종차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55%가 한인 스스로가 자성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정식고용 비율”에 대해서는 반수 이상이 20% 이하의 정식고용 비율로 답했다. 설문대상자 50명의 반이 5명 이하의 현지 고용인을 두고 있는 영세업자였다. 작업시간은 일일 11-12시간이 45%, 9-11시간이 35%, 8시간이 15%로 나타났으나 계절이나 종업원의 요구에 따라 상호 합의 조절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아르헨티나판] 3월12일자).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만들어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아르헨티나 한국동포들은 상당수는 의류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기타, 무역업, 전문직 등에 종사하고 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 동포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로 인하여 현지에서 교육받은 1.5세, 2세 등이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에 진출하였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동포들의 수는 매우 적다. 한국동포들이 아르헨티나 현지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동포들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sup>20)</sup>

#### IV.2. 현지사회와의 갈등 및 조화

한국의 이민역사가 40년이 되었지만 한인들의 현지 노동법 위반 및 문화에 대한 몰이해는 현지인들 또는 한국인들이 고용한 외국인들과의 충돌을 야기시키고 그 반향은 전체 한인사회에까지 파급된다. 1993년 페루 노동자를 고용한 어느 동포의 사건<sup>21)</sup>, 1994년 아르

20) 사실 이민사회의 교육열에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대학졸업자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는 일정 부분 입학하기는 쉽고 졸업하기는 어려운 아르헨티나 대학의 특성에서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실사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취업하기가 어렵고, 또 대우나 급여면에서 낮기 때문에 보다 조건이 좋은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아니면 전문직으로서의 직종을 포기하고 보다 경제적 소득이 좋은 상업활동에 몰리는 동포들의 의식구조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21) 1993년 이전에도 동포 봉제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페루 여자가 임금 계산문제로 여주인과 시비가 일어났는데, 내용은 잦은 결근과 조퇴로 지불할 것이 없다는 주인의 주장과 일한 한 달 치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페루인의 주장이 대치된 사건이었다. 당시 페루 여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자 여주인은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출입문을 열쇠로 잠갔다. 그러자 페루 여인이 출입구 철창 사이로 한국인이 자기를 감금하고 있다고 소란을 피워 결국 이웃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덩달아 신문, TV 기자, 경찰과 함께 조사원들이 현장에 들어닥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한국인이 “노동착취” “탈세자”로 보도된 여러 사건중의 하나였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 여주인이 현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그 동포의 주장으로는 한 달도 채 못 되는 기간을 하루 건너씩 결근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로 조퇴했는데, 가불했던 돈을 계산하면 오히려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감금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 기계와 물건이 있고 고용인들의 출입이 잦아 습관적으로 문을 잠근 것 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으나 그것으로 언론과 조사원들을 납득시킬 수 없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1984년에도 일어났다. 볼리비아인들을 고용하여 봉제하청업을 하던 한 동포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음. 그 동포는 작

헨티나 당국의 한인 의류업체에 대한 집중단속<sup>22)</sup>, 1995년의 109촌의 한인업소에 대한 합동조사<sup>23)</sup>, 그리고 볼리비아인에 대한 착취, 브라질 노동자의 고발 등 1990년대 한인사회는 이 문제로 시끌벅적했고, 현지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것은 한인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현지인들의 시기심에서도 비롯된다. 아르헨티나인은 자국을 라틴국가이면서도 문화적으로 가장 유럽에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유럽인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민초기에는 한국인들에게 우호적이었고 또 관대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이 현지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쟁자로 인식이 바뀌고, 그래서 애초에 가졌던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이라는 시각이 희석되고 한인들의 경제적 성장이 근면과 성실만이 아니라 탈세와 노동착취로서 이루어낸 것이 아닌가는 여론들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의혹은 당국의 단속에 적발되는 한인업소가 기사화됨으로써 일반적인 인식으로 굳어지는 경향이 현재의 추세이다.

또 소수이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인들이 혐오하는 개고기를 잡아

---

업방의 물건과 기계 때문에 항상 입구 철문을 열쇠로 잠그고 다녔는데 어느 날 동포가 외출한 사이에 고용인 한명이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갈려고 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었다.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그는 소리를 질러 이웃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주민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로 인해서 경찰과 구급차가 오고 동네가 떠들썩하게 소란이 피웠는데 그때 평소에 불만을 품은 동료들이 함께 경찰 증인에서 한국인 주인들이 자기들을 가두어놓고 열악한 상태에서 노예처럼 부린다고 고발해 동포가 즉각 구속되었던 사건이었다. 덩달아 그 사건을 보도한 현지 신문 또한 문제된 한인 무허가 봉제공장에는 고용인들이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모든 창문이 철저히 철책으로 막혀져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고용인들의 진술이나 현지 신문들의 보도내용으로 보나 동포에게 철저히 불리한 입장이었음. 그러나 그 사건이 발생하기 수개월 전에 보도된 현지신문(플라린지)의 사회면 기사에 당시 동포가 살고 있었던 까삐말 근교 지역의 심각한 치안불안으로 주민들이 빈번한 도둑이나 강도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철책을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이것이 증거가 되어 마무리되었다. 즉 한국인이 철책을 단 것은 고용된 사람들을 감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침범을 막기 위한 방위수단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해결된 것이다.

22) 1994년 10월24일, 플로레스 지역의 무허가 의류 생산공장의 한인 주인들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 하루 16시간의 중노동을 시키면서 낮은 급여를 지급, 착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현지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었다.

23) 1995년 3월1일 현지 라디오방송인 '라디오미뜨레(Radio Mitre)는 한 한인봉제업자가 볼리비아인을 열악한 작업장에 숙식시키면서 하루 15시간씩 노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먹거나, 보신용 사슴사냥 같은 행동을 하는 일부 한국인들이 있는데 이런 행위는 필요 이상으로 현지인들로부터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민족문제, 심지어 인종차별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sup>24)</sup>

전통적으로 백인 유럽이민들로 구성된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인종적 또는 민족적 차별은 여전히 상존한다. 1999년 미유대인위원회 재아유대인협회가 공동여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아르헨티나인들에게서 인종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 또한 2000년 유대인상조회(AMIA)와 아메리카유대인위원회(AJC) 공동의뢰로 전국의 16세 이상 1333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를 보면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외국인”이라는 설문조사에서 집시에 이어 한국인은 2위를 차지하였다.<sup>26)</sup>

24)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 몸보신용 사슴 사냥으로 현지사회에 물의를 빚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25) 빠히나21(1993년 4월4일자)에 의하면 한국인, 파라과이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아르헨티나인 5명중 1명은 한인은 아르헨티나인과 같은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꼬레아노는 아르헨티나인들의 인종차별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여론조사는 아르헨티나인 10명중 1명은 한국인이 없으면 아르헨티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18%는 아르헨티나인과 한국인 또는 파라과이인과 결혼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14%는 유대인과 결혼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르헨티나인 15-20%는 유대인, 파라과이인, 아랍인에 대해 차별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이 조사는 미국유대인협회(AJC)와 재아유대인협회(DAIA)가 사회학자 에드가르도 까테르 베르가에 의뢰해 1994년 12월에 조사완료된 것으로, 이 여론조사는 아르헨티나에 인종차별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와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산파베주, 포르도바주, 뚜꾸만주 등 4개주에 거주하는 1,900명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재아유대인협회의 루벤 베라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아르헨티나인에게 인종차별의식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1983년 이후로 인종차별은 근본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로 확인되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 결과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인 10명 중 7명은 인종의 다양성과 이질적인 종교 및 관습을 수용한다. 아르헨티나인 64%가 조사대상이 된 5개 민족이 모두 비호전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인종간의 통합에 있어서 아르헨티나인들은 한국인에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인이 아르헨티나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고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 같다.

26) 집시가 43%로 1위, 한국인이 26%로 2위, 페루인이 25%로 3위, 파라과이인이 19%로 4위, 유대인이 15%로 4위, 이탈리아인이 5%로 5위를 각각 나타냈다. 1998년 4월 플라린지는 “이웃을 살고 싶지 않은 외국인”으로 한국인을 64%로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는 한국인이 1위, 집시가 2위, 볼리비아인이 3위로 각각 나타나고 있고, 한인이 “배타적, 폐쇄적”이고 25.4%가 “불결”하고 15.2%가 “노동착취” 11.3%가 “상권장



아르헨티나인들은 한국 동포사회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단기간에 이루어낸 경제를 꼽고 있다. 그들은 한국동포들이 지속적인 아르헨티나 경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또 경제에 이어 한국인들의 장점으로 문화, 교육 등을 드는데 이는 경제적 능력과 문화적 정체성, 교육에 대한 열의 등이 아르헨티나 현지인들에게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가 반드시 아르헨티나인들의 눈에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것만은 아니다. 아르헨티나인들은 한인사회의 단점으로 동포들의 폐쇄성(69.1%)을 들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동포들은 업종의 유사성, 동포들 간의 경제적 상호관계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에 밀집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109상가'를 중심으로 온세지역, 아페자네다 지역에서의 한국인타운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폐쇄성이 한국동포들의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주변화되는 계기로 작용했음도 사실이었다.

크게 보면 지금의 한인사회는 1세대에서 이민 2, 3세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인사회는 현지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현지사회와의 접촉이 어려운 동포들이 자연히 모여 사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현지인들 눈에는 폐쇄적인 이민집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한인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 것인데, 그런 시각을 바꾸게 하려면 우리가 현지사회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응해야 하는 게 순리지만 이민 1세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다. 그들은 대부분이 현지 언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현지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면, 현재의 아르헨티나 한인사회는 크게 보면 과도기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동포들은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현지사회와 동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춘 차기 세대가 한인사회를 주도하게 되면 많은 부분 완화되거나 개선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앞으로 아르헨티나 거주 한국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을 현

---

약" 10.4%로 나타났다.

지사회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109촌의 한인치안방법대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방법대가 한인뿐만 아니라 현지 아르헨티나인에 대해서도 치안활동을 해주면 현지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민 초기에 아르헨티나인들은 한국인을 ‘하뽀네스’(Japonés)라고 부르며 근면하고 존경스러운 이민집단으로 보았다. 사실 이민초기 동포들은 일본인에 대한 현지인의 호감에 덕을 본 셈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기 일본인 소리는 없어지고 ‘꼬레아노’(Coreano, 한국인)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그 시기는 의류업계를 통하여 한인사회의 성장이 가시화된 시기와 일치한다. 최근에는 일본인은 일본인으로서 구별되어 인식하고 있는 대신, 한국인과 중국인을 혼동하는 이미지로 인식되어, 중국인이 저지른 행위를 한국인이 했다는 현지언론의 오보가 종종 일어나는 실정이다(재야한인이민문화연구회, 16). 사실 현지사회의 부정적인 대인시각을 하루 이틀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개선하자는 구호만 부르짖는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만들어져 온 부정적인 결과라면 아마도 그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끊임없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우리 쪽에서 현지사회를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게끔 스스로 개선, 정립하려는 의지를 갖아야 한다. 물론 현지사회에 대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현지사회나 언론의 문제는 반드시 동포사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현지 공관이나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현지 동포들이 공관에 바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후의 사후처리가 아니라 사전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한국동포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 V. 결론

이민사회면 어디나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사회에의 적응일 것이다. 아르헨티나에 간 한국인 이민의 경우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것을 위해서는 현지인 및 현지사회와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를 이루면서, 거주국의 시민적으로서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 언제나 과제로 남는다.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지사회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일민족으로서 살아온 한국인들은 외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못지않게 타민족에 대해 그릇된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불식시키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생활과 문화를 그 자체의 논리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한인들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 역시 간과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한인이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현지사회에의 적응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문화의 기준을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민 1세대, 이들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은 이민 2, 3세대에게 한국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은 이민생활에서 지속되는 원리로서 중요성을 띄고 있다. 문제는 한국문화와 현지문화와의 차이 속에 이민자들에게 심각한 문화적 갈등과 정체성 상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주류 역시 유입된 이민자들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소수집단은 다른 민족집단의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인류문화 발달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이 아르헨티나에 이민한지 올해로 꼭 40년이 된다. 그동안 농업이민으로 시작한 한국이민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사정, 자체 한인사회의 문제점, 그리고 여러 이유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나름대로 발전해 왔다. 이제 이민 40주년을 맞이하여 아르헨티나 한인사회도 보다 원숙한 사회로 재도약해야 한다. 안으로는 한인사회의 경제가 이전처럼 활성화되고 한국 동포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도 필요할 것이다. 또 세계화 시대에 보다 성숙된 한인사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져 현지인들과 교감하고 현지사회의 발전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할 일차적 주체는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이다. 여기 한국정부도 그에 부응하여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느 이민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아르헨티나 동포사회도 세대 간의 갈등, 부조화가 존재한다. 특히 한국어를 모르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한글교육에 대한 지원은 최우선 과제다. 아울러 이민 1.5세, 2세에 대한 지원강화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아울러 칠레와의 FTA 협정이 체결되는 등, 식량하고 자원이 풍부한 아르헨티나에 대한 본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지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차세대 한인 전문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남미 진출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는 그들이 양국간의 가교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류사회로의 진출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모국에서의 연수 등을 통해 그들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초청장학생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대간의 한국문화에 대한 괴리감도 심각한 실정이다. 다행히 아르헨티나에 중남미 문화외교를 위한 교두보로써 한국문화원 설립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도 아르헨티나 한인사회를 위해서 고무적인 일이다.

바람직한 이민자상(象)은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현지 거주국의 모범적 시민으로서 현지 주류사회에 들어가 개인적 발전과 그가 속한 민족적 집단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한인들이 아르헨티나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인사회를 공고화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 Abstract

Under New Liberalism, the opening-door, and globalization, recently personnel resources are shifting on the global scale. As the result of political and economical crises in Latin America these days, many Latin Americans emigrate into another countries and return home. However, the problem caused by globalization and deterritorialization is not limited to Latin Americans. In search of a new life supported by the opening-door policy, Koreans emigrated into Latin America. On the reverse, Korean emigrants into Latin America came back to Korea. On the other hand, the phenomenon of personnel resources movement in the region is conspicuous. The Korean living in Brazil, Paraguay, Argentina leave the country where they started a new life. Especially, Argentina's economic default influences Korean immigrants in Argentina to emigrate into Mexico.

Up to now, the Korean community, though small in number, has increased bigger extensively because of new immigrants from Korea and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However, as many Koreans immigrated into Argentina and the Korean community has grown larger suddenly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 have been much confrontation with Mexicans, and conflicts and disharmony among the Korean community. It is not desirable that these phenomena hurt each Korean immigrant,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image of Korea.

This paper puts it focus on the point discussed so far,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community in the case of Mexico since the 1990s, explores the desirable immigration and settlement, Koreans' entry into the main stream of the Mexican society and the directions of their further development.

Key Words: Inmigración, Argentina, Coreanos en el extranjero, Comunidad coreana, Identidad / 이민, 아르헨티나, 동포, 한인사회, 정체성

논문투고일자: 2005. 08. 13

심사완료일자: 2005. 08. 17

게재확정일자: 2005. 08. 20

## 참고문헌

- 서성철(2004),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인 이민/멕시코 한인사회와 현지 적응」, 라틴아메리카연구, Vol.17. No.4,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pp. 173-202.
- 이교범(1992), 『아르헨티나 한인이민 25년사』, 선영사.
- 이종철(2000), 「우리나라 재외동포정책의 현황과 과제」, 21세기 해외 한민족공동체 발전 전략(전남대학교 개교 48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전남대학교 아태지역연구소, pp. 4-12.
- 전경수(1996), 『세계속의 한민족 6권-중남미편』, 통일원.
- 외교통상부(2003), 『재외동포현황』.
- 인류사회연구소(2002), 『MERCOSUR(남미공동시장) 역내 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보고』, 재외동포재단.
- 재아르헨티나한인회(2000), 『아르헨티나 한인록』.
- 재파라과이한인회(1999), 『파라과이 한인이민 35년사』.
- 재외동포재단(2003),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 중앙일보(2005), 『중앙한인엽소록』.
- 한국일보(아르헨티나판) 2002년 3월 12일, 4월13일, 4월18일자.
- 김선철, 2004/08/02, 인터뷰.
- 박희섭, 2004/08/05, 인터뷰.
- 장영철, 2004/08/12, 인터뷰.
- Barkan, Elliot Robert(1992), *Asian and Pacific Islander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 Model of New Global Pattern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ialogorski, Mitra(1991), “Vos sabés que comen gatos?/Una vinculada a la comunidad de Buenos Aires”, *Revista de Investigaciones folclóricas*, Vol. 6.
- Bonofiglio, Jorge(1985), *Análisis socio-económico de las migraciones en la República Argentina*, Buenos Aires: Fundación FORUM.
- Ciaspuscio, Héctor(1987), “La política argentina de inmigración”, *Revista*

*de inmigración.*

- Mena, Carolina(1996), “Los coreanos no existen: reflexiones sobre la construcción de categorías sociales”, in M. Margalis y M. Urresti(comp.), *La cultura argentina de fin de siglo/Ensayos sobre la dimensión cultural*, Buenos Aires: CBC-Instituto Ginio Germani.
- \_\_\_\_\_ (1998), *La inmigración coreana en Buenos Aires/ Multiculturalismo en el espacio urbano*, Buenos Aires: Eudeba.
- Ming, Bill Ong.(1993), *Making and Remaking Asian America through Immigration Policy, 1850-1990*,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inisterio de Economía y Producción(2005), “Argentina: de la recuperación a la consolidación económica”, pp. 9-21.
- Ota Mishima, María Elena(1997), *Destino México/Un estudio de las migraciones asiáticas a México, Siglo XIX y XX*,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 Torrado, Susana(1986), “Política, Población, Políticas de población, Argentina 1946-1986”, Buenos Aires.